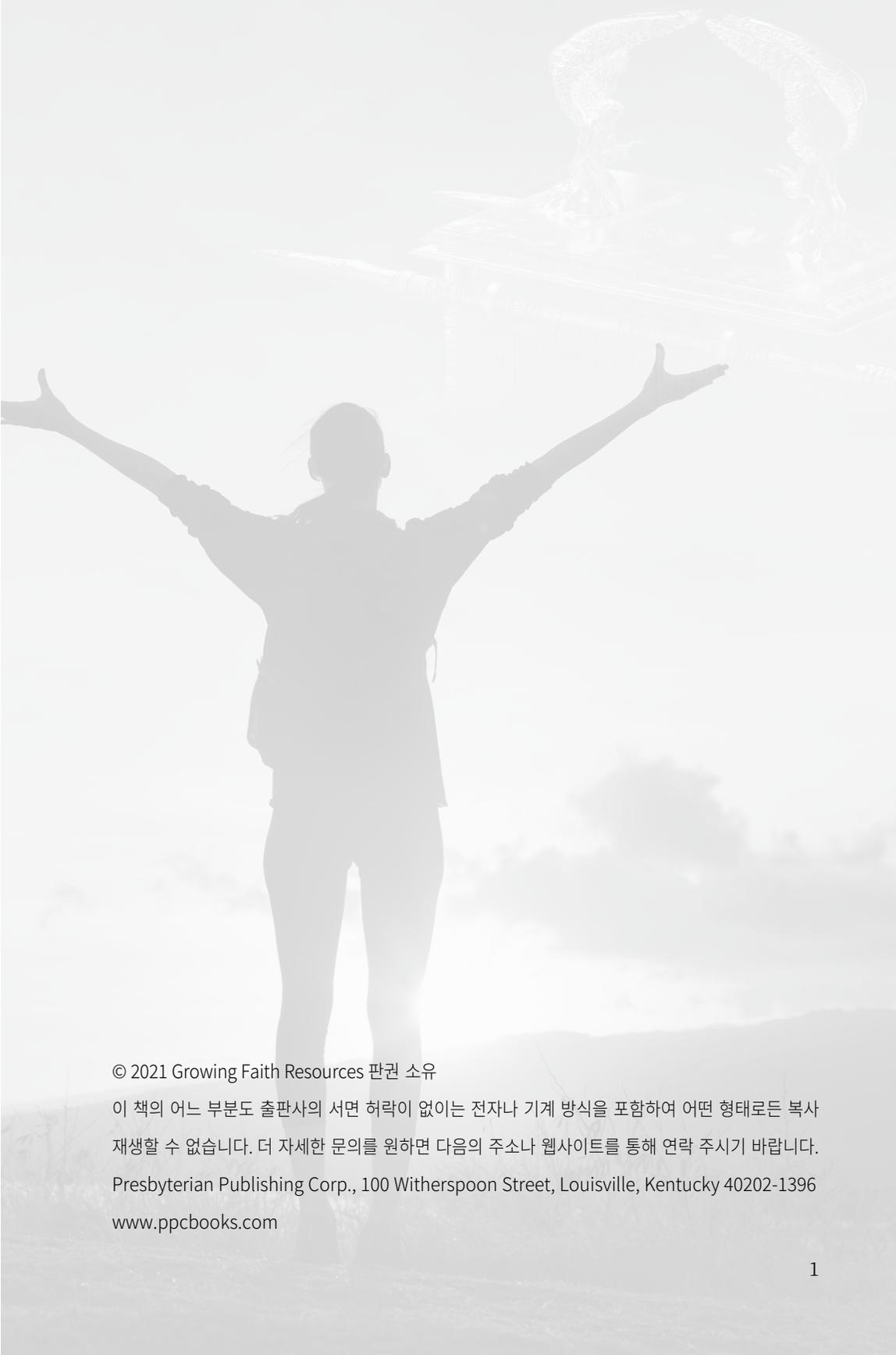


역대상

예배 회복

김준형 목사 지음



© 2021 Growing Faith Resources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김준형 목사(미국장로교 언어지원실 선임 번역자)

감수자 심우진 목사(시애틀연합장로교회), 한만식 목사(유타한인장로교회),

이재호 목사(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차례

편집자 노트 / 3

활용법 / 4

총론 / 6

제 1 과	긴 족보는 왜?	9
제 2 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13
제 3 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17
제 4 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1
제 5 과	한 마음으로.....	25
제 6 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9
제 7 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33
제 8 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37
제 9 과	복을 끌어 당기는 마음.....	41
제 10 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다윗	45
제 11 과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49
제 12 과	성전 건축 준비	53
제 13 과	성전 봉사자 준비.....	57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던 예배를 거의 1년 이상 동안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 들기 시작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온라인이나 대면에 상관 없이 공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예수님은 그의 양무리인 교회를 말씀(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요 10 장). 따라서 각 지역 교회들의 미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남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예배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여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다.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킹덤 라이프 “역대상: 예배 회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전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이 교재를 집필해주신 김 준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이다. 이 교재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라는 말보다는 훈련 교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말씀 깨닫기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혹은 3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들(해석 질문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들이 나와있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들은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말씀 따라 살기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라.

예배 회복

역대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64장에 걸쳐 다룬다. 그 내용이나 분량이 다른 성경의 책들에 비해 손색이 없이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반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를 역대서의 책명에서 파악할 수 있다. 최초의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칠십인역(LXX)은 역대서의 책명을 파라레이포메나로 번역했는데, 이는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역대서 제목은 ‘드브레이 하요밈’으로 ‘시대의 일들’이라는 뜻이다. 이 제목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대서를 비중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목적

본서는 기원전 458년에 있었던 제 2 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포로 귀환민들은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후 약 70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아직 택한 민족에게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이방 족속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포로 귀환민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포로 귀환민들로 구성된 선민 이스라엘은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서 저자는 긴 족보를 통해 다윗 언약에 기초한 선민 역사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포로 귀환민들을 격려한다. 또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번영과 폐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 제도였던 성전 제사 제도를 강조한다. 즉, 여호와 신앙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도전한다.

한 눈으로 보는 역대사

역대서 저자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의 족보(1-9장)를 통해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을 보여준다. 바로 뒤이어 10-29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였던 다윗 왕의 업적을 기술한다. 그 가운데 10-20장은 다윗의 즉위와 삼십인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정치적 측면을(10-12장), 다윗의 언약케 예루살렘 안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언약을 소개함으로써 신앙적 측면을(13-17장), 그리고 다윗의 정복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군사적 측면을 다룬다(18-20장). 그리고 21-27장까지는 다윗 통치 후반 기에 있었던 인구 조사와 성전 건축 준비 사업을 다룬다. 다윗에 관한 20장의 기록 가운데 무려 일곱 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와 관계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본서 저자가 신정 국가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비중을 두고 본서를 기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목차

- 제 1 과 긴 족보는 왜?(대상 3 : 1-24)
- 제 2 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대상 9 : 1-27)
- 제 3 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대상 10 : 1-14)
- 제 4 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상 11 : 1-10)
- 제 5 과 한 마음으로 (대상 12 : 23-40)
- 제 6 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대상 13 : 1-14)
- 제 7 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대상 14 : 1-17)
- 제 8 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대상 15 : 1-4, 11-15; 16 : 1-4, 37)
- 제 9 과 복을 끌어 당기는 마음(대상 17 : 1-19)
- 제10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다윗(대상 18 : 1-14)
- 제11과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대상 21 : 1-18, 26; 22 : 1)
- 제12과 성전 건축 준비(대상 22 : 2-13; 28 : 1-19; 29 : 1-5)
- 제13과 성전 봉사자 준비(대상 23 : 1-5; 24 : 2-5; 25 : 1, 7; 26 : 1, 6-9)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 역대상 1:17~27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구의 자손입니까?

화요일 역대상 2:1~3

역대서 저자는 이스라엘(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의 자손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까?

수요일 역대상 3:4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씩 다스렸습니까?

목요일 역대상 4:9~10

유다의 자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요일 역대상 6:1

레위의 세 아들은 누구입니까?

토요일 역대상 6:31, 33, 39, 44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어떤 직무를 행했습니까?

주 일 역대상 6:49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무엇입니까?

긴 족보는 왜?

제1과

오늘의 말씀

역대상 1 : 1~3; 2 : 1~4, 13~15; 3 : 1, 10, 17~24; 6 : 31~32, 49

찬송

207장(통 243,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기도

인도자 혹은 자원자

Kingdom
Life





마음 열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기 가문의 족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씀 듣기

다 함께 본문을 읽은 후,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긴 족보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유념하면서 경청합니다.

— 배경설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BC 516)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해 가야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갔고, 이방인과 혼인함으로써 선민의 순수성까지 상실해 가고 있었다. 역대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 역대서 저자는 맨 먼저 이스라엘의 긴 족보로 시작한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리고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인들로 이어져 내려온다(1-9장). 역대서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

선민 역사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밝혀 주면서, 자신과 동시대인들이 바로 족보에 언급된 이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또한 이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특별히 다윗 가문(2-3장)과, 레위 가문(6장)을 상세하게 다룬다. 그 이유는 포로 귀환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17: 12-13절 참조)에 기초하여 신정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고, 또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도움말

- 밧수아(3: 5) : 밧세바의 다른 표기임.
- 스룹바벨(3: 19) :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대 총독(스 3: 8; 5: 2).
- 하나냐의 아들(3: 21) :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 핫두스(3: 22) :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으며,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 인물임(스 8: 2-3).
- 레위의 아들들(6: 1) :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성막(성전)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성소를 돌보는 직무를 맡음.



말씀 깨닫기

1. 역대상에는 몇 장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서 저자는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1-9장, 배경설명 참조)

2.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2-8장)중에서 장자 르우벤 대신에 어느 지파가 첫 머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2 : 1-3)

3. 3 : 17-24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스 3 : 8; 스 8 : 2 참조). 역대서 저자는 왜 당대의 사람들을 다윗 가문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배경설명 참조)

4. 역대서 저자는 12지파의 족보에서 유다 지파 외에 또한 레위 지파를 길고 상세하게 소개합니다(6장). 역대서 저자가 레위 가문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6 : 31-32, 49절, 배경설명 및 도움말 참조)



말씀 따라 살기

1. 성경에서 자신이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아 한 주간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소그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매일 성경 읽기

월요일 역대상 9:1~2

포로귀환 후 팔레스타인 땅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화요일 역대상 9:3~6

귀환자들 중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의 총 숫자는 얼마입니까?

수요일 역대상 9:10~13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총 숫자는 얼마입니까?

목요일 역대상 9:14~16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금요일 역대상 9:17~22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의 총 숫자는 얼마입니까?

토요일 역대상 9:22~27

회막 문지기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주 일 역대상 9:33

찬송하는 레위 우두머리들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